

밀턴 프리드먼과 평생교육 바우처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20세기 경제학의 아이콘이다.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마치 경제학의 나침반처럼 자유시장의 길을 밝혔으며, 정부 개입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려 했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경제학자는 예측자가 아니라 설명자다'라는 수상 소감을 남겼다. 그의 '설명자(explainer)'는 복잡한 경제적 상호작용을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원리와 메커니즘을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뜻했다.

밀턴 프리드먼이 그의 아내 로즈 프리드먼과 함께 쓴 <선택할 자유>는 자유시장의 가능성을 한 쪽의 서사시처럼 펼쳐내며, 개인의 선택이 억압에서 번영으로 가는 열쇠임을 설교한 경제 자유주의의 걸작이다.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유시장은 이러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

율적인 시스템이라는 메시지다.

교육도 선택할 자유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교육은 가장 소중한 투자이자, 선택의 자유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이루는 기반이었다. '학교교육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표제로 교육의 딜레마를 다룬 대목에서다.

초·중등교육은 대부분 정부가 직접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질과 접근성을 가진다. 프리드먼 부부는 이러한 공교육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선택권을 제한하며, 교육의 질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한다.

고등교육은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운영되며, 정부의 지원은 대학 간의 경쟁을 약화시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한다고 분석한다. 고등교육 지원이 부유층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저소득층은 여전히 고등교육 접근이 어려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초·중등교육에 선택의 날개를 달아줄 바우처 제도를, 고등교육에는 책임과 자율의 씨앗을 심을 장기 학자금 대출과 민간 재원 활용을 제안하며 교육 혁신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이용권 형태의 보조금을 제공하

고, 학부모는 이용권을 사용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정부는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학교 운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밀턴 프리드먼의 교육 바우처는 개인의 학습 여정을 지원하는 기틀이 되어, 한국의 평생교육 바우처로 이어졌다. 40년을 훌쩍 지난 2021년,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명시되며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의 권리를 제도화한 열매로 결실을 맺었다.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로 돌아가 보면 평생교육 바우처는 민주사회의 토대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정 수준의 교양과 지식을 갖추지 않고는 안정된 민주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프리드먼의 메시지를 잊지 않으려는 우리의 다짐인 것이다.

이 제도는 선택의 자유와 배움의 기회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고자 하는 현대적 구현인 것이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책임을 피하지 않고 혼란을 막겠습니다?



기지 수첩 박 태 홍 (정치경제부)

'책임을 피하지 않고 혼란을 막겠습니다.' 9일 아침 출근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집 앞 큰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마주친 흰 바탕에 현수막엔 검은색 굵은 글씨로 짧은 문구가 적혀있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한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한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다.

해당 현수막은 국민의힘 정당을 나타내는 로고도, 국민의힘을 나타내는 빨간색 글씨도 없다. 어떤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도, 어떻게 혼란을 막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적어도 공당이라면, 윤

대통령이 위험적이고 위협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의 일터인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해 동료 당직자와 시민을 위협했다는 사실에 대한 사과가 먼저이지 않은가.

현수막 내용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떠한 사고나 실책으로 인해 책임질 일이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한 혼란이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혼란스럽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부결하기로 당론으로 정하고 실제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투표를 아예 성립조차 못하게 했다. 탄핵 표결 당론을 부결로 정한 이유는 그들이 겪었던 '탄핵 트라우마' 때문이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당이 분열하고 실제로 거의 망했던 경험이 그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이미 윤석열 정권 아래에

서 그들이 여당으로서 누려왔던 지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차기 대선에서 도저히 정권 재창출을 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에 와서 이재명 정권 탄생에 기여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과 소통하고 대통령의 막가파식 계획을 견제하지 못했다.

탄핵 표결 불성립 다음날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신들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누가 이들에게 그럴 권한을 줬나. 윤 대통령은 보란듯이 인사권을 행하고 있다. 이들이 의원총회를 그렇게 많이 여는 것은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당내의 혼란을 막겠다'는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10일 (음 11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어려운 일을 주변 도움으로 해결. 48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최선을 다해야. 60년생 피로를 느끼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72년생 자력으로 무리 없이 집 매수할 기회를 잡게 된다. 84년생 개나리를 보고도 봄을 못 느끼는구나.



37년생 상대에게 배려를 바라지 않아도 보답으로 돌아온다. 49년생 울적하지만 음주는 주의하자. 61년생 마음이 뻥 돌리는 시원한 하루. 73년생 변화가 있는 날이니 새로운 시작. 85년생 지난 일은 접고 현실에 만족해야 마음이 편안하다.



38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뛴지 않으니 쉬지 말고 전진. 50년생 주변을 책임 맡고 서류를 잘 살펴라. 62년생 사람 만나는 것이 보장된다. 74년생 계획이 없던 지출로 경제적 곤란을 겪으니 허세는 주의. 86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야.



39년생 죽은 나무에 이제는 물을 주지 마라. 51년생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63년생 뜻만 세우고 노력은 하지 않는다. 75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무사히 처리. 87년생 길거리 다닐 때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 날까 걱정이 드는데.



40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해결된다. 52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인다. 64년생 남이 차린 밥상을 고맙게 받아라. 76년생 여행하려니 떠나기도 머무르기도 어려운 하루. 88년생 남의 도움을 받게 되나 지출도 많이 발생.



41년생 진로수정은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53년생 공들인 탐은 헛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65년생 남비 요소를 줄이고 간직재정. 77년생 고통과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89년생 사람들의 의견 치료로 손해가 발생.



42년생 가족과도 금전거래는 신중히. 54년생 남동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으니 여행을 떠나 보자. 66년생 시작부터 후지부지될 수 있으니 각오를 단단히. 78년생 공연한 논쟁은 비효율적 소모이다. 90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43년생 때가 왔으니 힘껏 전진하라. 55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오늘은 현상 유지가 최선. 67년생 주변의 무관심이 오히려 감사. 79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영업거래가 성사된다. 91년생 스스로 겸손하니 말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도와준다.



44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서 명예를 드높이는 날. 56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격이다. 68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80년생 지지를 받고자 하면 논쟁을 만들지 말도록. 92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가족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



45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해야 할 때. 57년생 후배가 길을 터주니 감사. 69년생 잃을 게 없다면 두려울 것도 없다. 81년생 꽃 피고 새가 울어대니 어떤 일이나 시작해도 좋을 것. 93년생 추위가 오기 시작하니 건강을 조심.



46년생 평소 쌓아둔 실력으로 좋은 결과를 보게 된다. 58년생 노란색이 오늘 행운을 준다. 70년생 인색한 고집으로 스스로 힘들다. 82년생 꾸준히 일하다 보면 기쁨은 따라오게 마련. 94년생 실비보험은 필수이니 아직 안 들었다면 들어야 할 것.



47년생 우물이 곁에 있어도 두레박이 없으니 허탕. 59년생 좋은 결과는 청정한 선택에서 비롯됨을 명심. 71년생 헛된 희망을 품지 마라. 83년생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방법이 보인다. 95년생 새 생애이나 행동에 대해 뒤돌아보는 시간들.



김상회의四季 과거시험과 수능

2025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시험이 지난 11월 7일에 치러졌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서인지 해외 뛰어난 신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수능시험에 대한 단상들이 실렸다. 대학입시의 첨경인 수능시험에 대하여 "대학입시 때문에 한국이 멈춰 섰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나 "증시거래마저 보류시킨 65만 한국인들의 대입 시험"이라는 블룸버그통신의 글귀까지 보인다. 한국의 교육열은 영미권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이름이 높다. 이는 고려나 조선 시대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유전자처럼 내려오는 문(文)을 숭상하는 전통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명문대학에 입학해야 공직에서의 출세나 우수 기업에의 취업은 물론 사회적으로 높은 연봉과 미래가 보장되는 등용문에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니 목숨 걸고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바람은 부모나 학생 모두의 현실적인 열망이 아닐 수가 없다. 조선 시대 때의 문과 과거시험에 있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양반 이상이어야 했다. 가문의 영광을 걸고 응시를 하는 과거생들의 부담은 어쩌면 지금의 수능생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어쨌든 수능 입시생이 있는 가정은 최소한 1, 2년간은 온 가족이 살얼음판에 비견될 긴장 상태 속에 지내게 된다. 이 또한 단 하루 수능 입시일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 가정들의 숙명 아닌 숙명이다. 시험으로 단칼에 가능하려 하기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수험제도의 마련을 위해 이런저런 보완조치를 마련해오고는 있으나 길은 멀어 보인다. 사주학에서 공부에 특징이 있는 신살은 문창성(文昌星)이다. 이 신살이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녹봉과 작위를 받을 기운을 타고났으니 시험과 관련해서는 매우 유리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고난도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고난도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6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67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